

社說

文藝大學

온통 5·31지방선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4월19일에는 조미의 관심사였던 한나라당 포천시청 후보공천이 되어 더욱 포천시민의 심사가 혼란스럽기만 한 때 조용히 향토작가를 발굴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말없이 시와 산문을 공부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이름하여 포천문예대학이다. 포천문예대학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의 교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지역주민들은 전수받은 지식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벌써 3기째다. 2기까지 많은 시민들을 배출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지역사회와 대학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내려는 작업을 시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대학교수들의 적극적인 열정적인 가르침에 감동 받고 대학교수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문화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서를 담보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에 빠져든다.

포천문예대학은 포천문인협회와 대진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기까지는 문화일반, 교양을 다양하게 교육해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제고했다. 그리고 제3기에서는 시와 산문 등 창작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첫 강의를 마치고 난 대진대학교 교수들은 수강생들과 좀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대학교수들은 수강생들이 왜 문예대학에 수강신청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교수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이번 수강기간동안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 본인 이 습득해야할 창작원리는 무엇이며 작품의 내용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포천은 과거 선비의 고장이었으며 우수한 전통문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작품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이러한 포천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포천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포천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학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학자들이 관련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끝났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진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와 같은 각종 연구소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이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대학과 시민사이의 가교역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예산지원도 중요하다. 지식인들이 포천의 정체성을 연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활발하게 연구에 나서고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은 정체성을 담보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포천문예대학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글쓰기 요령을 잘 습득하여 포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작품 활동으로 진정한 향토작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이 일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익금 일부 반납해야 병역특례 부여

고조흥 국회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최근 미국 월드컵을 개최한 WBC에서 4강 진출의 쾌거를 거둔 국가대표 선수중 11명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회기간에 즉흥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결정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병역특례 형성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병역특례의 기준이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란 열악한 여건을 딛고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아마추어선수들이 축구나 야구 같은 프로선수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고조흥 국회의원(포천·연천)은 병역특례를 권위 있는 국제대회로 확대할 것과 병역특례자의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고조흥 의원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분야의 범위를 권위 있는 국제대회로 확대하여 인기 예술·체육분야의 선수들과 비인간적 이마추어선수들이 축구나 야구 같은 프로선수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수익금(연봉, 광고수입, 연금 등을 포함)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익금의 일부로 관련분야를 진흥시키거나 병역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비인간 예술·체육분야 종사자들간의 위화감이 해소되고, 병역특례가 특정계층의 혜택이라는 비난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승원 기자 form66@paran.com

춘계수련대회, 일일찾집 개최한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13차 임원회의서 의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3일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2006춘계수련대회 개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지난 13일 오전10시30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2006춘계수련대회 개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사람의 동진모기를 위해 돼지저금통을 건어토전 이상향 대표의 협찬으로 120개를 마련해 각 지부에 배포해 사랑의 동진모기를 원하는 식단에 배포하고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포천신문 최두열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부명예기자단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원여러분들의 가정

에 배포해 사랑의 동진모기를 원하는 식단에 배포하고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포천신문 최두열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부명예기자단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원여러분들의 가정

에 배포해 사랑의 동진모기를 원하는 식단에 배포하고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포천신문 최두열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부명예기자단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원여러분들의 가정

에 배포해 사랑의 동진모기를 원하는 식단에 배포하고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포천신문 최두열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부명예기자단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원여러분들의 가정

에 배포해 사랑의 동진모기를 원하는 식단에 배포하고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건강검진好評

포천시보건소 '눈높이 재활팀' 운영

포천시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의 일환으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천시보건소의 '눈높이 재활팀'은 앰블린언어와 방문보건차량 등을 이용해 장애인을 보건소로 이송한 다음,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에 다시 가정으로 데려다주고 있다.

장애인들은 보건소에서 내과와 의사 검진과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 그리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번 검진 사업은 4월 한 달간으로 계획돼 있으나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더 연장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특히 검진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필요한 치료까지 해주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경주순산으로 전신이 마비돼 17년째 침상생활을 하고 있는 K씨(48세)는 보건소 재활팀이 아니면 검진을 고사하고 의욕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

재활팀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가 일반 의료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길은 의료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때 큰 보람을 얻는다고 말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천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관내 초·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제7기 명예경찰 소년단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순찰활동 체험·학교폭력 신고

포천경찰서 제7기 명예경찰 소년단 발대식 행사

포천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제7기 명예경찰 소년단원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교 4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님 동행과 각 학교장이 추천을 거쳐 관내 2개 초·중학교에서 70명을 선발, 제7기 명예경찰 소년단원으로 위촉했다.

김영배 포천경찰서장은 신규 위촉된 명예경찰 소년단원들을 축하하며 명예경찰단복 삼각건 및 조인 바늘을, 변진수교육장은 볼펜세트를 각각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이인형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은 다과를 제공하고 소년단원들을 격려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각종 시민불편 사항 기사제보 이어져

지난 13일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충현)는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건으로 제시된 '포천신문 발행에 참여의 건' 토론에서 조사위원들은 과거 포천시 현안문제였던 병원적출물 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공사가 진행중인 광역상수도 공사와 관련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시기 및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운행 불편사항들이 제기됐다.

또한 가로등이 15도 각도로 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직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최호열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사제보와 위원상환간 친목도모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5·31지방선거에서 포천신문은 냉철한 중립을 지키고 후보들간에 정책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위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일꾼을 섬취하는데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66@paran.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가 지난 13일 개최돼 시민 불편사항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사인은 최호열 발행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website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Pocheon News is the highest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and a list of subscription rates.